

처음으로 가는 병원은 몸도 아픈 데다가 수속 밟는 것에 대한 불안도 큰 법입니다. 그 때 「문진표」가 있다는 것과 작성 방법을 알고 있으면 안심하고 수진할 수 있습니다.

문진표가 뭐예요?

병원 창구에 가면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일본의 병원에서는 초진일 경우 접수에서 문진표를 받습니다. 문진표란 의사의 진찰을 받기 전에 작성하는 당신의 건강에 관한

기본정보입니다.

용지에는 당신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질문사항이 많기도 하고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의학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건강할 때에 의료에 관한 일본어를 공부해 두어 병원에 갈 때 곤란한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 둡시다.

예를 들면 「내과」 (배 전반에 관한 진찰) 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진표를 받게 됩니다.

이름	생년월일	연령	성별 남 여
주소		전화번호	
①	몸 상태는 어떠십니까? • 열이 있다 • 목이 아프다 • 기침이 난다 • 두통 • 배가 아프다 • 설사 • 구역질 • 구토 • 그 외		
②	그 증상은 언제부터 입니까?		
③	약이나 음식물 등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④	현재 복용 중인 약은 있습니까?		
⑤	과거에 어떤 병을 앓았습니까?		
⑥	여성분에게 묻습니다 임신 중이십니까?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개월) 가능성 있다 없다 현재 수유 중 이십니까? 예 아니요		



※NPO법인국제교류하티고난다이와 재단법인카나가와국제교류재단의 다언어의료문진표를 참고로 했습니다

<http://www.k-i-a.or.jp/medical/>

어떤 병이라도 질문사항에는 반드시 알레르기의 유무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에 대해서 기입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은 알려지명이나 자신이 복용 중인 약 이름을 알아 둡시다. 실제로 복용 중인 약을 지참하시는 것도 좋겠지요.

또, 평상시 어디에 병원이 있는지 확인해 둔다든가 일본어 교실에 다녀 진찰할 때 필요한 일본어 회화를 공부해 두면 병이 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언어의료문진표」에 기입하여 프린트 한 것을 항상 지니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글·아라이 준코)

www.ficec.jp/foreign/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의 사무소를 이전했습니다. 새 주소는 마지막 페이지에

**핸드폰으로 통역이 딸린
생활상담이 무료로 가능**



외국적 시민인 분으로 관공서에서 상담하고 싶어도 일본어에 자신이 없어 갈 수가 없었다든가 말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었다는 경험은 없습니까?

이런 고민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와 사이타마현은 협동사업으로서 「핸드폰을 이용한 동시통역사업」을 9월부터 스타트했습니다. 통역요금은 들지 않습니다.

이번 통역사업은 평성 23년 3월까지 시행업무로서 실시하며 사이타마현내의 9군데의 관공서 창구 (아사카시·카조·가와구치시·가와코에시·한노시·히가시마즈야마시·나메카와쵸·미사토시·와라비시) 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관공서의 안내에 가서 문의한다 (미리 상담할 내용을 메모해 가면 좋겠지요) ⇒②안내 받은 장소에 간다⇒③메모나 말로 통역이 필요하다고 알린다⇒④직원이 통역에게 전화 연락⇒⑤그 자리에서 통역자가 함께한 상담을 시작. 상세한 설명은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로 전화해 주세요.

아동부양수당 신청을 아직 안 한 분이 있습니다

편부모가정을 위한 지원으로 올해 8월부터 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아빠만인 가정도 대상이 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 모르셨던 분은 당장이라도 「육아지원과」에 신청해 주세요. 신청 다음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의 건강검진 개시!

평상시 건강관리가 병으로부터 몸을 지킵니다. 후지미노시에서는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으로 내년 3월 31일 까지로 40세 이상이 되는 분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카미후쿠오카보건센터 창구에서 수진표를 받아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증을 지참하여 검사를 받아 주세요.

B형,C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받으시다

B형, C형 간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3월 31일까지로 40세 이상이 되시는 분이 대상입니다만 지금까지 검사를 받은 분이거나 간염 치료 중, 경과 관찰 중인 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카미후쿠오카보건센터에 신청해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메밀(소바)”은 장수와 관련된 것으로 일본의 건강식품으로서 빼 놓을 수 없는 것 입니다. 특히 연말에는 「토시고시소바」라고 해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며 반드시 먹습니다.

**메밀국수를 직접 만드는 체험을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2월 16일 (목)**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일본어교실에서도 일본의 습관을 경험해 보시게 하고 싶어 작년처럼 대 인기인 토즈카 선생을 모시고 메밀가루로 메밀국수 만드는 체험학습인 「소바도장」을 실시합니다 메밀가루를 반죽하는 것부터 시작 해 먹을 때까지의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는 자유이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센터의 일본어교실 수강생 이외 2시 1초의 일본어 교실에서 배우는 분 등 누구든지 대환영입니다. 선생님들에게도 권유하셔서 메밀국수를 만들어 진짜 메밀국수의 맛을 체험하러 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12월 16일 (목) 11시부터
- ◆장 소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
- ◆강 사 토즈카선생 (일본어 선생) 선생입니다)

일본어 공부하러 오세요/조금 걸지만 새 교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가 새 사무소로 이전하고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후지미노역에서 조금 멀어 졌습니다만 교실은 밝고 깨끗해 졌습니다. 아직 공부하시는 분이 적어서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친구나 일본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있으면 알려 주셔서 공부 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후지미노역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르는 분은 모시러 가겠습니다. 「후지미노국제교류센터」에 전화해 주세요 ☎ 049-256-4290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일본어교실은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www.ficcc.jp/living/

●새 사무소는 후지미노역에서 도보 20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최종페이지를 봐 주세요